

“인자 맘풀고 가자...” 관객들 먹먹

리뷰-오월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광주 전통연희극단 '놀이패 신명'
5·18 당일부터 27일까지 극화
행방 피해자들 씻김굿으로 위로

“근디 여 대못 니가 죽음서 박아놓고 간 요 대 못. 요것맘세 내가 못날아가야. 요 대못이 보상을 받는다고 뽕힐거야나, 유공자가 된다고 뽕힐거야 나.”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광장에서 펼쳐진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마지막 장면. 5·18 당시 행방불명자가 돼 구전을 떠돌던 아들 '호석'을 안고 높은 무당 '박조금'이 한을 풀어내기 시작하자 현장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중장년층 관객들은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올 때마다 쓴 기침을 삼키거나 쉼 소리를 냈다. 장례를 할 때 곡성이 끊기지 않도록 소리 내는 곡비(哭婢)인 양, 나뭇의 방식으로 작은 슬픔을 더하는 모양새다. 물론 극화된 장면이지만 행방불명된 아들 영혼이 어머니와 재회하는 장면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언젠가 봄날에'는 창단 40주년이 넘는 광주 전통연희극단 '놀이패 신명'의 오월 창작 마당극이다. 2010년 초연한 뒤 10여 년 넘게 지역민의 입소문을 탄 흥행작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일부터 27일까지 행방불명된 이들을 초점화했다. 남기성이 연출했으며 박조금 역은 지정남 배우가 맡았다. 백구두(김호준), 최호석(고동민), 정욱(노은지) 등이 출연.

공연은 광주에 남겨져 있는 5·18 진상규명 문제를 환기하는 동시에 현재화한다. '행방불명자(행불자)' 문제가 바로 그것. 최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조사를 통해 5·18 당시 행방불명자를 총 179명으로 확정했다. 불과 2년 전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암매장됐던 유골이 42년만에 발견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행방불명 보상신청'을 통해 접수한 242건 가운데 85명만 행방불명자로 인정해 왔으나, 최근 조사로 94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처럼 44년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행불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공연은 박조금의 살풀이하듯한 곡소리와 허밍, 북소리로 시작해 빠른 템포로 전개됐다. 굿



무당 박조금이 아들 호석을 안고 진혼하는 장면.

〈놀이패 신명 제공〉

판을 끝내고 쉬고 있던 박조금 주변에 44년간 이승을 떠돌고 있는 '백구두', '여학생', '시민군' 영혼들이 몰려 든다. 이들을 저승으로 데려가야 하는 저승사자들은 몰래 숨어있던 영혼을 찾아내며 "발설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저승으로 돌아갈 것을 희유한다.

행방불명자 영혼들은 영면에 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원통함, 신군부에 대한 진노가 이들의 혼을 구천에 남아있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위트와 코미디, 해학이 가득한 공연이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먹먹하다.

행불자가 된 아들을 기다리던 박조금이 저승사자에게 "아들을 찾아 달라"며 으름장을 놓는 대목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공포의 존재인 저승의 차사에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박조금의 모습은 자식을 여인 부모의 한, 5·18에 대한 광주의 사무치는 마음을 유비적으로 드러냈다.

"여기가 명당이라. 좌우를 살펴보니 그러저라 '갈마수수성'이라, 목마른 말이 물 먹는 성국이요.

노기화된 높은 쥐 만곡을 내려다보고 웃고 내려오는 성국이요. 서남간을 바라보니 노적봉이 비쳤으니 오늘오신 벗님네들 받고 살기 충분하겠소."

극중에는 무당의 열두 굿거리 중 하나인 제석굿도 들을 수 있다. 진도 토박이들이 상을 당하면 당골 무당을 불러 펼치는 '씻김굿'으로 5·18의 의미와도 접맥한다.

드문드문 들려오는 사투리. 1980년 그날의 긴박함을 드러내는 진돗개 경보 등은 짧은 러닝타임에도 긴장감을 선사했다. 단원들이 단체로 나와 '진혼무'를 펼치거나 계엄군을 피해 도망치는 시민군의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등도 실감났다.

이날 공연은 박조금이 "애썼다. 인자 맘 풀고 가자, 그때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니도 나도 혈만 큼 했다"며 아들을 안아주는 장면 등으로 마무리된다. 높은 무당이 "그보듬 얼마다 뭇을 더 하겠냐"며 구수한 사투리로 호석에게 "애썼다"고 말하는 대목은 오랫동안 여운을 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양림동 소녀' 임영희 작가 초청 북토크

오늘 독립서점 소녀의 서

임영희 작가 겸 연출가가 펴낸 '양림동 소녀'는 격동과 감동의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그는 80년 오월 시민군으로 참여했으며 '광대'의 단원으로도 활동했다.

파란의 현대사를 거쳐왔지만 50대 어느 날,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다. 후유증 탓에 오른쪽 몸

이 마비되는 불운과 맞닥뜨렸지만 외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작업한 그림을 모티브로 애니메이션 영화 '양림동 소녀'를 연출했고 영화는 서울독립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광주독립영화제 등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임영희 작가에게 80년 5월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는 현재진행형이다.

임영희 작가 초청 북토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북토크는 독립서점 소녀의 서에서 28일 오후 7시 황지운 작가 진행으로 열린다. '1980년 광주의 오월, 지금의 오월'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콘서트는 황지운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5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진행자로 나서서 황지운 작가는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안녕, 피터'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소설집 '올해의 선택', 인터뷰이에게 '그리고 오늘의 행복을 모읍시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현대 융합 '전남산 뮤지컬' 만든다

전남문화재단 사업계획 발표...연말 수도권·도내 일원 시범 공연



전남도립극단 여순 가무악희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공연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12월 중 메가 브랜드 뮤지컬 제작 발표회', '지역 소멸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프로젝트' 등.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창립 15주년을 앞두고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전남의 역사, 비전을 담은 '메가 브랜드 공연'을 창·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뮤지컬 평론가, 문화재 전문가, 남도민속학자, 뮤지컬 예술감독 등으로 구성된 '전남 브랜드 뮤지컬 제작 자문회'를 구성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뮤지컬 제작을 위한 제작사 공모, 선정을 마친 뒤 12월 중 수도권·도내 일원에서 '제작발표회' 형식의 시범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브랜드 뮤지컬에는 전남의 1004개

섬, 국가무형문화재 씻김굿, 들노래, 다시래기 등 전통문화자원과 산다이, 밤다래 등 남도의 '힙(Hip)'한 연희적 요소를 결합시킨다는 복안이다. 전남문화재단의 브랜드 뮤지컬이 남도의 전통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차세대 'K-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밖에도 재단은 지역소멸 및 빈집 문제 해결 방법을 청년이 모색하는 '2024청년문화기획자 프로젝트' 운영 계획도 내비쳤다. 최태성, 심용환 등 스타 역사강사들이 출연하는 '어? 마한 이야기!' 특강도 예년과 같이 진행한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남도의 유구한 전통문화자원과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트 포러티 요소를 결합해 '메가 브랜드 뮤지컬'이라는 시너지를 일으키고자 한다"며 "지역 문화자원, 예술인, 예술행정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전남의 문화예술 브랜드화'를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류빈 기자 rubi@

우리 가락의 멋과 흥 봄밤 적시네

광주시립창극단 '천변만화' 30일 광주예술의전당

흥과 신명, 절제미로 가득 찬 우리 전통예술에는 변화무쌍한 특질이 담겨 있다. 천변만화(千變萬化) 속에서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이하 창극단)이 2024년 기획 공연 '천변만화'를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한국적인 멋이 깃든 거문고 산조 합주곡, 창작 창극을 비롯해 단막 창극, 태평무 등을 만난다.

공연은 서영호류 거문고산조 합주곡 '희로애락'으로 시작한다. 남도 시나위와 판소리 더늠(장기로 부르는 대목)을 기악으로 옮겨 표현한 합주곡이다. 거문고(김태래 연주)를 중심으로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아쟁의 음색이 더해져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노래다.

창작 창극 '산불'은 전쟁으로 인해 과부 마을이 되어버린 산동네에서 '점례'와 '사월' 두 여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국군이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르려 하고, 점자 아슬아슬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어 셰익스피어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우리 식으로 극화한 동명의 전통 창극도 볼 수 있다. 2008년 국립창극단이 초연했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판놀이공모에 선정돼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다.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절제미가 돋보이는 춤 '태평무'는 창극단 무용부의 춤사위에 담긴다. 오진욱이 연출한 단막 창극 '광한루'는 춘향전 다섯 바탕 중 초입부분 대목을 극화한 것이다. 대미는 '대북을 위한 신명 판타지 취와 타'로 장식할 예정이다. S석 2만원, A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